

# 도전하니까 되더라.

= 스타농민이 되는 길 =



이 기 범 지회장  
충남 공주시지회

## 1. 서론

국제 농산물과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고 위기를 극복 하려면 변화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자신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발전되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사꾼이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필수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농업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개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고 벤처 농업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부 보호라는 오래된 그늘에서 벗어나서 시장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됩니다.

농업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그 분야에 최고의 전

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작은 개선이 모여 혁신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남 따라서 씨 뿌리고, 약치고, 거두는 농민이 많은 현실입니다.

생산한 농산물을 그래도 파는 농사를 집어 치우고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맞추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산물에 내 이름 석 자를 걸 자신이 없고 팔 때마다 상인에게 굽실거리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벤처정신으로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여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팔아야 돈 벌고, 대우받고, 주체는 농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도 타 분야처럼 사람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관련지식이 더해 질 때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되고 위기를 희망으로 다 같이 바꾸어 봅시다. “곰도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 모험은 해야 한다. 미친놈이 되어라.” 제 인생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저는 마곡사 근처에서 태어나 5대째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공주 토박이입니다. 세계 굴지의 제약 회사들이 사운을 걸고 신약을 개발하듯 저는 새로운 약초재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약초재배 전문가, 두충, 감초, 작두콩, 헛개나무 등 재배를 잇따라 성공하면서 약초분야에서 일인자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공한 약초재배를 이웃에 보급시켜 농가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농업학교 재학시절 산수유 20주를 심으면 부모 도움 안 받고도 장가 갈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땅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산에서도 쌀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겨울 산을 개간하고 밤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의 왕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피나는 노력 끝에 밤 씨눈을 직접 접목하는 새로운 작물재배기술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하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농사는 머리로 짓는다.”라는 글귀를 방문에 써 붙이고 늘 새로운 각오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지중지 가꾸놓은 밤나무를 내손으로 모두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 두충나무를 심는 모험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곰”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충에 관해 연구하고 왜 두충을 못 심는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간질환, 신장 기능, 임신부 산전 산후

보약, 강장제, 요충 등에 좋다는 것을 입증하고 재배 기술을 널리 알리는데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두콩과 감초재배를 국내 최초로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두콩이 없어서 길림성 김춘섭 당서기가 직접 방문하여 재배기술을 배워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간염이나 지방간에 좋다는 헛개나무로 특허까지 받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방에 감초,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감초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한약재로 6톤을 수입하여 연간 110억 원이라는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초의 종자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토양에 맞게 재배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전국 농촌지도소를 돌며 재배기술을 널리 알리고 묘목을 보급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성공한 분야의 약초 기술을 널리 알리고 나무를 보급 하는 것을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을 가로 막을 수 없듯이 농산물 개방은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바라만 보고 당하는 것 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공약 한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이 물 맞듯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조그만 바꾸어 우리 농산물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린나무를 정성들여 키워야 후에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땅의 주인이 되어서 맘을 흘러준다면 밝은 내일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기술을 배우고 약초도 심고 가꿀 수 있는 약초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약초를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자손들

에게 당당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고향 지킴이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 2. 헛개나무 · 작두콩 가공으로 고소득 창출



약용식물 재배 및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이기범·박난옥씨 부부가 노지에 재배한 작두콩의 생육을 살피고 있다.

충남 공주시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30분쯤 걸리는 신평면 화흥리, 이기범 씨의 인생터전인 황금약초농(www.goldherb.co.kr)은 국도에서 자동차가 겨우 비껴갈 수 있을 정도의 꼬불꼬불한 마을길을 6km쯤 들어가서 더 이상 길이 없는 지점에 서야 만날 수 있다. 인적이 드문 오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산새 소리만 마을의 정적을 깰 뿐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곳 농장엔 외지의 방문 차량들이 연중 꼬리를 물고 있다. 농장 견학을 위해서다.

이씨는 최근 별장처럼 아름다운 목조 건물 2채를 지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친구들은 학교 졸업 후 공무원 생활도 하고 기업에 취직도 했지만 저는 이곳에서 지금까지 약초재배와 연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

듯이 오늘날 제가 유명세를 치르게 된 것도 약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약초재배와 연구에만 한 우물을 파온 그는 지금도 농사꾼이란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말을 열었다.

### 가. 발명특허 받은 건강보조식품

황금약초농장은 헛개나무와 작두콩 등 여러 가지 약용식물들을 재배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약과는 달을 쌓고 있다. 그가 주력 품종으로 가꾸고 있는 헛개나무와 작두콩은 무농약인증을 받을 만큼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현재 그가 생산하고 있는 가공제품은 헛개나무 잎과 열매, 줄기에서 추출한 ‘원간보’와 작두콩을 원료로 한 ‘작두콩 진액’ 등으로 모두 발명특허를 받은 제품. 그는 이 두 가지 제품으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원재료의 경우 작두콩은 계약 재배를 통해 조달하고 있으나 헛개나무는 모두 자가 생산한 것이다. 판매장도 공주시내에 한 곳만 있을 뿐 전국적인 유통망도 없다. 그럼에도 매년 제품이 바다날 정도로 잘 팔리는 것은 입소문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들어오는 주문량이 거의 50%에 육박한다. 이쯤 되면 농사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하다. 그러나 그는 아직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작두콩,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할 경우 꼬투리 길이가 50cm까지 자란다고 한다.



헛개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헛개나무는 키가 20m까지 자라기 때문에 높은 가지의 열매는 흔들어서 수확한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한다. 농장을 더욱 발전시켜 관광과 연계한다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나. 주력작물로 선택한 헛개나무



수확기의 헛개나무 열매 모습



전통 민간요법 전문가로서 지금도 각종 약용식물 효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농고 졸업 후 그는 약초를 재배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농사에 몰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오랫동안 시행착오 끝에 약초재배법에 일가견을 가지면서 많은 희망을 걸었으나 중국산 한약재 수입 여파는 그에게 빛만 계속 안겼다. 그러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 밤묘목 생산이다.

“공주는 지금도 밤 생산지로 유명하잖아요. 일본 수출이 한창일 때는 농가들이 돈을 제법 많이 만졌어요. 밤은 묘목을 심은 후 3년 이상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데, 그때 제가 고안한 것이 밤을 직접 싹틔워 접목하는 방법이었지요.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묘목은 수확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길 수가 있어 큰 인기를 끌었죠.”

그 당시 밤나무를 접목해 번 돈으로 약초 재배연

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는 그는 밤 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손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초농사를 겨우 이어가던 그가 관심을 돌린 것은 헛개나무. 실로 우연한 계기로 인해 헛개나무 신봉자가 됐다.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이씨는 음주 후 숙취로 고생하다 동네 어른들로부터 ‘헛개나무 가지를 꺾어다 삶아 먹어라’는 얘길 듣고 그대로 실행한 결과 큰 효험을 얻었다.

그리고 <본초강목>에서 헛개나무가 ‘주독 해소뿐 아니라 간보호 기능에 탁월하다’는 내용을 보고 이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번식법을 연구한 그는 그때부터 집 주위에 심었던 두충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1995년부터 헛개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2만여 평이나 된다.

여러 가지 약용작물을 대상으로 소득을 올리기보다 경제성 있는 단일품목에 주력하기로 한 것이다. “재배를 하면서 약효성분 등을 분석해보니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헛개나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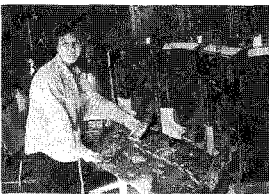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헛개나무(일명 지구자나무)는 국내에선 호깨 또는 호리깨, 볼개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 나무는 키가 20m까지 자라며, 잎은 산뿔나무를 닮았고, 6월에 매우 향기로운 흰 꽃을 피운다.

고급 밀원식물로도 각광받고 있는 헛개나무는 10월부터 열매가 익는데, 가지 끝에 붙은 꽃 꼭지는 열매가 익을 무렵 살이 찌서 울퉁불퉁한 모양의 관경이 된다. 이 관경을 씹으면 달큰한 향이 한 시간쯤 입에 남아 있을 정도이다.

이씨는 헛개나무 열매와 가지, 잎과 여기에 2~5%의 감초를 가미한 농축액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헛개나무 꽃을 밀원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다. 국내 처음 작두콩 도입해 소득작목으로 육성**

작두콩이 국내 처음 알려진 것도 이씨에 의해서다. 작두콩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자신의 고질병(?) 때문이다. 축농증이 심했던 그는 1992년 일본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작두콩이 축농증에 효험이 있다는 얘길 듣고 분말을 구입해 복용하게 됐다. 신기하게도 축농증이 말끔히 없어진 것을 경험한 그는 직접 작두콩을 재배기로 결심하고 일본에서 씨앗 10개를 얻어 이 가운데 2개의 씨앗에서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식물 특성이나 관련 정보 하나 없이 재배를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다 작두콩이 열대성 식물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재배기술을 터득해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다.



부인 박난옥씨가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진액을 자동포장기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



황금약초농장에서 생산하는 작두콩과 헛개나무 가공제품

“지금은 종자가 국내 기후와 토양 환경에 순화돼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지만 처음 몇 년간은 식물 특성을 몰라 애를 먹었어요. 심지어 식물학자들도 작두콩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더군요.”

작두콩은 콩과의 일년생 냉쿨식물로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다. 콩꼬투리 길이가 30~50cm나 되는 이 식물은 칼 모양을 닮았다 해서 도두(刀豆)라 부르기도 하는데, <본초강목>이나 중국의 <중약대사전> 등 여러 문헌에 많은 약리효과가 전해지고 있다.

최근 국내 임상실험에서도 축농증과 치질·중이염·종기 등 각종 화농성질환 치료에 뛰어난 뿐만

아니라 항암작용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작두콩은 콩과 꼬투리·잎·뿌리 등을 모두 약재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씨는 현재 약성을 이용해 진액과 분말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부나 간장 등 여러 가지 식품 개발에도 이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약용식물도 기능성에 초점을 맞춰 개발해나간다면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용식물 재배와 이용법에 대한 강의는 물론 방송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했을 정도로 전통 민간요법에 해박한 그는 요즘 지리적 장점을 이용한 관광농원을 꿈꾸고 있다. 각종 약용식물에 대한 전시포를 설치해 체험학습장을 제공하는 한편 헛개나무 꽃 축제도 계획하고 있다.

약초를 통해 자연의 변화와 이치를 배우고 있다는 그는 “과거에는 그저 먹고사는 데 만족했다가 기호성 시대를 거쳐 앞으로는 기능성을 찾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농업도 시대조류를 잘 간파해 대처하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㉞

황금약초식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범 지 회장(공주지회)은 약초 생산·가공·유통을 하는 약초재배 40년의 경력(약초 80종류 보유)으로 약초시범포·가공시설·체험행사·약초술 시음행사 등 약초체험 전문농장 운영, 헛개나무 꽃축제·두릅채취(산채류)·약초비빔밥 등 봄·가을 약초축제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백하수오 시범포 견학과 재배방법 등의 지도와 종자(묘)를 분양하고 있다.  
(연락처 : 011-435-4825)